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s in Mother with Young Children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김미숙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문혁준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aster : Kim, Mi Sook

Dept. of Child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istant Professor : Moon, Hyuk Jun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and on parenting behaviors in mothers with young children. Ed. Note: confirm wording. A total of 222 mothers, each having children aged three to five,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percentile, mean, standard deviation,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parenting efficacy and stres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parenting behavio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s was mediated by the mother's parenting efficacy. In conclusion, the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a perception of parenting stress turn out to be important factors in predicting parenting behaviors.

주제어(Key Words): 양육 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양육 효능감(parenting efficacy), 양육 행동
(parenting behavior)

Corresponding Author: Hyukjun Moon, Departmen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an 43-1 Yokkok2-Dong Wonmi-Gu,
Buchun City 420-743, Korea Tel: 82-2-2164-4486 Fax: 82-2-2164-4485 E-mail: mhhyukj@unitel.co.kr

1. 서론

유아는 누군가의 끊임없는 보살핌을 받아야 하며 그 중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한다. 즉, 부모의 양육 행동은 자녀의 인성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일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선행 연구에서도 양육 행동 중 온정이나 애정, 관심과 같은 특성은 아동의 자아존중감(박영애, 정옥분, 1996), 사회적 능력(천희영, 1993), 정서지능(박영애, 최희영, 박인전, 2000), 안정 애착(Bowlby, 1973)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 양육 행동은 사회 정서성(김광웅, 이인수, 1998)과 공격성(김민정, 도현심, 2001)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상과 같이 부모의 양육 행동은 국내외의 학자들의 끊임없는 관심을 받아온 주제이다. 또한, 유아는 가정, 교육기관, 지역사회 등을 포함하는 생태학적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달해 가며 특히 환경적인 변인 중 가장 변인인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라게 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성장·발달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유아의 지적, 정서적인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Rohner, Hann, & Rohner, 1980; Saavedra, 1980).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인 이외에 어머니의 내적인 요인도 고려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Luster와 Okagaki(1993)의 연구를 보면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편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들이 겪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우울성향이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쳐 비효율적인 양육 행동을 하게 된다(Beaman, Chao, Conger & Simons, 1993). 또한 Abidin(1992)은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역기능적인 양육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으며, 박응임(1995)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로 하여금 부당한 양육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 변인임을 발견하였다.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1996)과 신숙재(1997) 역시 지적하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연과 최영희(1992)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부모역할이 다르게 부과된다고 보았다. 즉,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은 물론 양육 행동에도 관련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조사 연구하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연구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양육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변인 중 인지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부모의 양육 행동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안지영, 2001). 현운강(1994)은 부모의 양육 행동과 관계되는 인지적 요소인 양육 효능감이 자녀의 양육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문혁준(2001)의 연구에서도 양육 효능감은 자녀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 애정, 권위주의 통제, 적극적인 참여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Lerner와 Galambos(198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효능감이 낮으면 자녀의 요구에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거부적인 태도를 보여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Mondell과 Tyler(1981)는 문제해결 상황과 놀이상황에서 부모의 행동과 심리적 능력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부모가 부모로서 효능감이 있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아동을 능력과 자원이 많은 존재로 취급하고 문제해결 상황에서 더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등,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고 일관되게 행동하였다. 또한 우희정과 이숙(1992)은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클수록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보이며, 이러한 태도가 자녀의 자기 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양육 효능감은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과 관련되어 있어서 사회적 지원이 낮고 스트레스가 높으면 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숙재, 1997). 또한 어머니와 관련되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가정소득이 높고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Teti & Gelfand, 1991). 이처럼 양육 효능감은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그 역할이 중요시된

다고 보고 있다(안지영, 2001).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은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Duncan & McAnley, 1993; Teti & Gelfand, 1991; Welch & West, 1995). 즉, 양육 효능감은 대처 자원으로 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 행동 간에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육 효능감과 양육행동 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연구 결과도 있어(전인옥, 이정옥, 1999)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인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의 전반적인 경향과 이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 양육 효능감이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 사이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가정하여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양육 행동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양육 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2-2.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2-3.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4.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은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5개의 어린이집

에 다니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222명으로 각 어린이집에 연구 협조를 의뢰한 뒤 어머니들에게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표 1>, <표 2>과 같다. 연구 대상 어머니의 자녀의 연령은 만 3세 47명, 만 4세 101명, 만 5세 74명이며, 성별은 남아 124명, 여아 98명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3.6세(SD=3.66)이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36.9%, 대학교 졸업이 35.1%, 대학원 졸업 이상이 6.8%로 나타났다. 또한, 전업 주부가 전체의 32.4%로 나타났고 취업모는 67.6%이었다.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은 200만원 미만인 25.2%, 201만원~300만원 미만인 28.4%, 301만원~400만원 미만인 32.0%, 그리고 401만원 이상이 23.4%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자 자녀의 일반적 특성 (N=222)

변 인	구 분	빈 도(%)
성 별	남 아	124(55.9)
	여 아	98(44.1)
연 령	만 3세	47(21.2)
	만 4세	101(45.5)
	만 5세	74(33.3)

<표 2>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N=222)

변 인	구 분	어머니
		빈도 (%)
어머니의 연령	25세 이하	1(0.5)
	26세~30세	40(18.0)
	31세~35세	123(55.4)
	36세~40세	52(23.4)
	41세 이상	6(2.7)
어머니의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82(36.9)
	전문대 졸업 및 대학 중퇴	47(21.2)
	대학교 졸업	78(35.1)
	대학원 이상	15(6.8)
어머니의 취업유무	취업 무	72(32.4)
	취업 유	150(67.6)
월 평균 수입	200만원 미만	56(25.2)
	201~300만원	63(28.4)
	301~400만원	51(32.0)
	401만원 이상	52(23.4)

2. 측정도구

1) 양육 스트레스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의 문항을 안지영(2001)이 18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성가시지 않는다.'는 1점, '보통이다'는 3점, 그리고 '매우 성가시다'는 5점에 해당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의 자녀 양육과 연관되어 일어나는 일들을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alpha=.87$ 이었다.

2) 양육 효능감

Gibaun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16문항으로 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신숙재(1997)가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한다. POSC는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9문항)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4문항)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는 변인인 양육 효능감 9문항만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부정문으로 된 2문항이 역으로 채점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효능감이 많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육효능감 도구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alpha=.76$ 이었다.

3) 양육 행동

박성연, 이숙(1990)이 만든 것으로 7개 요인 중 4개의 요인인 합리적인 지도(8문항), 애정(9문항), 권위주의적 통제(9문항), 적극적 참여(6문항)를 수정, 보완하여 총 32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Likert식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지도' 요인은 아동을 도와주거나 아동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어서 왜 안 되고 왜 용납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양육 행동으로 신뢰도는 $\alpha=.84$ 이었다. '애정' 요인은 아동에게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아동 중심적이면서 아동을 존중·수용해주고, 아동의 요구

에 민감한 양육행동이다. 문항의 신뢰도는 $\alpha=.86$ 이었다. '권위주의적 통제' 요인은 자녀에 대해 거부적이고, 아동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어른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아동을 무시하며 벌을 사용하여 강요하는 양육행동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alpha=.74$ 로 나타났다. '적극적 참여' 요인은 아동과 함께 적극적·활동적으로 행동하며, 아동과 놀아주고, 아동이 하는 일이나 문제 해결에 대해 요청하면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양육 행동이다. 문항의 신뢰도는 $\alpha=.72$ 로 나타났다.

〈표 3〉 각 척도의 문항 수 및 신뢰도 계수

		문항 수	신뢰도 계수
양육 스트레스		18	.87
양육 효능감		8	.76
양육 행동	합리적 지도	8	.84
	애정	9	.86
	권위주의적 통제	9	.74
	적극적 참여	6	.72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2003년 1월 26일부터 30일 까지 5일에 걸쳐 서울시에 위치한 5개의 어린이 집을 다니고 있는 만 3~5세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400부였으며 이중 회수된 설문지는 296부였다. 회수된 질문지 가운데 만 3~5세의 연령이 아닌 것과 잘못 표기하였거나 응답이 많이 빠진 자료를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222부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양육 행동 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며,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연구 문제에서 변인 간 또는 하위 요인간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를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의 전반적인 경향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1~5점의 가능한 범위 중 평균은 3.69(SD=.83)로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는 비교적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은 1~5점의 가능한 범위 중 평균은 3.47(SD=.45)로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들의 양육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다. 자녀의 양육 행동은 1~5점의 가능한 범위 중 특히, 애정(M=3.93, SD=.47)과 합리적 지도(M=3.87, SD=.45)가 다른 양육 행동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권주의적 통제(M=2.77, SD=.48)는 비교적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N=222)

변 인		평 균	표준편차
양육 스트레스		3.69	.83
양육 효능감		3.47	.45
양육 행동	합리적 지도	3.87	.45
	애 정	3.93	.47
	권위주의적 통제	2.77	.48
	적극적 참여	3.58	.51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 간의 관계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 5〉와 같이 성취를 제외한 모든

〈표 5〉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 간의 상관관계 (N=222)

양육 행동	양육 스트레스
합리적 지도	-.40***
애 정	-.25***
권위주의적 통제	.30***
적극적 참여	-.21**

p<.01, *p<.001

양육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양육 행동에서 합리적 지도(r=-.40, p<.001), 애정(r=-.25, p<.001) 그리고 적극적 참여(r=-.21, p<.01)는 양육 스트레스와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한편, 권위주의적 통제(r=.30, p<.001)와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으면 자녀에게 권위주의적 통제를 더 하며 양육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합리적 지도, 애정적, 적극적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양육 행동인 합리적 지도 (r=.53, p<.001)와 애정(r=.53, p<.001), 적극적 참여 (r=.56, p<.001)는 양육 행동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권위주의적 통제 (r=-.33, p<.001)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합리적이고 애정적이며 적극적인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권위주의적 통제는 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 간의 상관관계 (N=222)

양육 행동	양육 효능감
합리적 지도	.53***
애 정	.53***
권위주의적 통제	-.33***
적극적 참여	.56***

***p<.001

3)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과의 관계는 r=-.35(p<.001)로 유의한 부적관계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양육 효능감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N=222)

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35***

***p<.001

3.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파악하였다. 즉, 독립변인들 간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으며 독립변인들 간의 높은 상관으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었다.

1) 합리적 지도

합리적 지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모델 1에서 투입한 사회 인구학적 변인

들의 설명력은 5%이었으나 유의한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 변인들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는(모델 2) 양육 스트레스($\beta = -.28, p < .001$)와 양육 효능감($\beta = .40, p < .001$) 변인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높고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수록 합리적 지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합리적 지도에 대한 독립 변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35%로 나타났다.

2) 애정

애정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표 10>과 같다. 모델 1에서 투입한 사회 인구학적 변인 가운데 자녀 연

<표 8> 변인들 간의 단순상관관계

(N=222)

	1	2	3	4	5	6	7	8
1. 아동 성별								
2. 아동 연령	.02							
3. 어머니 연령	.02	.32***						
4. 어머니 학력	.05	-.14*	-.07					
5. 취업유무	.05	.06	.13*	.01				
6. 가정 소득	.05	-.06	.17***	.48***	.18***			
7. 스트레스	-.10	-.12	-.05	.11	-.02	-.02		
8. 효능감	.03	-.05	.06	.27***	.03	.27***	-.34***	

* $p < .05$, *** $p < .001$

<표 9> 합리적 지도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의 회귀분석

(N=222)

	합리적 지도			
	Model 1		Model 2	
	B	β	B	β
자녀의 성별	-.01	-.01	-.04	-.04
자녀의 연령	.01	.02	.00	.01
어머니의 연령	.03	.05	.02	.03
어머니의 교육수준	.07	.14	.05	.11
어머니의 취업유무	-.10	-.11	-.10	-.10
월 평균 수입	.04	.11	.00	.01
양육 스트레스			-.15	-.28***
양육 효능감			.39	.40***
회귀상수	3.63		3.04	
F	2.43*		14.88***	
R ²	.05		.35	

* $p < .05$, *** $p < .001$

<표 10> 애정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의 회귀분석

(N=222)

	애정			
	Model 1		Model 2	
	B	β	B	β
자녀의 성별	.02	.03	.00	.00
자녀의 연령	-.10	-.15*	-.10	-.15**
어머니의 연령	-.00	-.11	-.02	-.03
어머니의 교육수준	.11	.21**	.07	.14*
어머니의 취업유무	-.01	-.01	-.01	-.01
월 평균 수입	.02	.06	-.01	-.03
양육 스트레스			-.07	-.12*
양육 효능감			.46	.44***
회귀상수	4.09		2.96	
F	4.01**		13.48***	
R ²	.10		.33	

* $p < .05$, ** $p < .01$, *** $p < .001$

령($\beta = -.15, p < .05$)과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 = .21, p < .01$)이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10%로 나타났다. 모델 2의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후에는 자녀의 연령($\beta = -.15, p < .01$)과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 = .14, p < .05$)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beta = -.12, p < .05$)와 양육 효능감($\beta = .44, p < .001$)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모델 2의 설명력은 33%이다. 즉, 애정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고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권위주의적 통제

권위주의적 통제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이 모델 1에서 투입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가운데는 자녀의 연령($\beta = .36, p < .001$)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델 1의 설명력은 15%이다. 다음 모델 2의 분석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변인을 투입하면 자녀의 연령($\beta = .38, p < .001$)은 여전히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어머니의 취업유무($\beta = -.11, p < .05$)가 영향력이 나타났다. 모델 2의 변인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beta = .26, p < .001$)와 양육 효능감($\beta = -.22, p < .01$) 모두 권위주의적인 통제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즉,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표 11> 권위주의적 통제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의 회귀분석 (N=222)

	권위주의적 통제			
	Model 1		Model 2	
	B	β	B	β
자녀의 성별	-.10	-.11	-.07	-.08
자녀의 연령	.24	.36***	.25	.38***
어머니의 연령	.00	.00	.01	.01
어머니의 교육수준	-.00	-.01	-.00	.00
어머니의 취업유무	-.11	-.11	-.11	-.11*
월 평균 수입	-.00	-.01	.02	.05
양육 스트레스			.15	.26***
양육 효능감			-.24	-.22**
회귀상수	2.04		2.15	
F	6.54***		11.82***	
R ²	.15		.30	

* $p < .05$, ** $p < .01$, *** $p < .001$

않으며 양육 효능감이 낮을수록,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통제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권위주의적 통제에 대해서 자녀의 연령이 가장 큰 변인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의 영향력이 높았다. 분석에 사용된 전체 변인의 설명력은 30%로 나타났다.

4) 적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이 나타났다. 모델 1에서 투입한 변인 가운데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 = .27, p < .001$)과 월 평균 수입($\beta = .16, p < .05$)이 유의하였으며 15%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을 투입한 결과(모델 2)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 = .20, p < .01$)과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beta = .46, p < .001$)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고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적극적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의 분석에 투입된 모든 변인들의 설명력은 37%이었다.

<표 12> 적극적 참여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의 회귀분석 (N=222)

	적극적 참여			
	Model 1		Model 2	
	B	β	B	β
자녀의 성별	-.00	-.00	-.02	-.02
자녀의 연령	-.04	-.07	-.04	-.06
어머니의 연령	.05	-.06	.03	.04
어머니의 교육수준	.15	.27***	.11	.20**
어머니의 취업유무	-.08	-.07	-.08	-.07
월 평균 수입	.07	.15*	.03	.06
양육 스트레스			-.05	-.08
양육 효능감			.51	.45***
회귀상수	3.31		1.94	
F	6.58***		15.99***	
R ²	.15		.37	

* $p < .05$, ** $p < .01$, *** $p < .001$

4.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은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 간의 관계는 매개한 것으로 가정되었다.

〈표 13〉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양육 효능감의 매개 효과

	합리적		에정적		권위주의적 통제		적극 참여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β	β	β	β	β	β	β	β
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40***	-.25*** .44***	-.25***	-.07 .50***	.30***	.21** -.26***	-.21**	-.02 .55***
회귀상수	4.66	2.86	4.43	2.27	2.13	3.26	4.05	1.46
F	42.6***	54.69***	13.99***	43.20***	21.70***	18.90***	10.31***	50.08***
R ²	.16	.33	.06	.28	.09	.14	.05	.31

** $p < .01$, *** $p < .001$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7〉과 같이 양육 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 간에는 $r = -.35$ ($p < .001$)의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양육 스트레스 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는 보이는 양육 행동으로는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적극적 참여였다. 분석결과는 양육 효능감은 합리적 지도를 제외하고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애정에 대해 모델 1을 보면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beta = -.25$ ($p < .001$)로서 유의하게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녀를 애정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모델 2의 분석결과는 양육 효능감을 추가로 투입하면 양육 효능감은 ($\beta = .50$, $p < .001$)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내는데 비해, 양육 스트레스는 애정에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7$, n.s.). 따라서 양육 효능감은 양육 스트레스가 애정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적극적 참여는 모델 1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beta = -.21$, $p < .0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델 2에서 양육 효능감을 추가로 투입하면 양육 효능감의 영향력 유의하게 나타나는데 비해 ($\beta = .55$, $p < .001$)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beta = .02$, n.s.). 따라서 양육 효능감이 양육 스트레스와 적극적 참여 간에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권위주의적 통제에 대한 분석 결과, 모델 1에서는 양육 스트레스가 권위주의적 통제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권위주의적 통제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0$, $p < .001$). 이후 모델 2의 분석에서 양육 효능감을 추가로 투입하면 양육 효능감은 권위주의적 통제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beta = -.26$, $p < .001$),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그 유의도가 감소되어 ($\beta = .21$, $p < .01$), 양육 효능감이 양육 스트레스가 권위주의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완전히 유의하지 않게 변화하기보다 유의도 수준이 $p < .001$ 에서 $p < .01$ 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통제에 대해서는 양육 효능감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기보다는 부분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양육 효능감이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 〈표 13〉과 같이 양육 스트레스가 애정적, 적극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양육 효능감의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고,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 행동에 대해서는 양육 효능감의 부분적인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론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대상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비교적 높게 느끼고 있었으며 양육 효능감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

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은 합리적인 지도와 애정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양육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더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유아는 일상생활에서 어머니가 챙겨주어야 하고 신경 쓰는 등 어려움을 더 많이 갖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자녀가 어릴수록 스트레스가 높다는 유우영, 최진아, 이숙(1998)의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 행동을 보면 양육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녀를 양육에 대해 합리적 지도, 애정적, 적극적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권위주의적 통제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 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그에 따른 반응으로 양육 행동에서 강압적이고 명령이나 비난을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 연구들(박응임, 1995; 박성연 외, 1996; 신숙재, 199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을 본 결과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합리적 지도, 애정, 적극적 참여를 하며 권위주의적 통제는 덜 사용하였다. 이는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우희정, 1993; 문혁준, 1999; 안지영, 2001)과 어머니의 효능감이 낮은 경우에 더 훈육적이고 강압적인 양육 행동을 한다는 결과(Luster & Kain, 1987; 신숙재, 1997)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은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어머니가 지각되는 일상생활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높으면 거부적이고 벌을 사용하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양육 효능감이 높으면 애정이며 적극적인 양육을 한다. 따라서 양육 스트레스의 내용이나 대처방안 등에 대한 추후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합리적 지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리고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Cric와 Greenberg(1990)

의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반면 양육 스트레스가 합리적인 양육과는 관련이 없는 변인으로 본 신숙재(1997)의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애정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애정적인 양육 행동을 더 하며 양육 스트레스가 낮고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애정적인 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적극적 참여 양육 행동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월 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높을수록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다. 애정과 적극적 참여에 대한 결과는 우희정과 이숙(1992) 그리고 Mondell와 Tyler(1981)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권위주의적 통제를 보면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통제가 나타났으며 낮은 양육 효능감도 권위주의적 통제에 영향을 주었다. 이 결과는 박성연 외(1996)과 신숙재(1997)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결론적으로 양육 행동의 내용에 따라 사회 인구학적 변인, 양육 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의 상대적 영향력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육 행동을 하위 변인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넷째, 양육 효능감은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정, 적극적 참여에는 양육 효능감이 완전 매개하였고 권위주의적 통제에 대해서는 양육 효능감이 부분 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양육 행동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의 매개 역할을 통해서 양육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안지영(2001)과 Abidin(1992)의 제안을 지지한다. 결론적으로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는 각각 독립적으로 양육 행동에 영향을 주며, 특히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 효능감을 매개로 양육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 간의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내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양육 효능감인 인지적 변인이 매개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바람직한 양육 행동은 높은 효능감이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어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에 위치한 5개의 교육 기관에 자녀를 둔 어머니로 한정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좀더 일반화 시키려면 다양한 계층과 지역, 연령을 대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여 양육 행동에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면서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 또한 중요한 요인임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 행동에 미치는 변인의 영향력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양육 효능감은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의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추후 양육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부모 교육과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양육 행동의 내용별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애정과 적극적 참여에 대한 사회 인구학적 변인을 보면 단계적으로 영향력이 변화하거나 사라졌는데 이는 어떤 중재로 영향을 미쳐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광웅, 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6.
- 김민정, 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7.
- 문혁준(2001). 부모역할 만족도와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05-220.
- 박성연, 이 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아동학회지*, 9(2), 61-94.
-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양육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4), 203-215.
- 박영애, 정옥분(1996).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의 관계연구-자존 감에 대한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의 독립적 기여와 상호 작용효과. *아동학회지*, 17(1), 189-202.
-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2000).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육 행동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 차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3(2), 71-88.
- 박응임(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 유형과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주희(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 목표, 양육 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아동학회지*, 22(4), 1-15.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희정, 이 숙(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 효능감간의 인과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15, 71-90.
- 전인옥, 이경옥(1999). 유아의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인과 모형 탐색 -사회 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교육 신념과 양육에 대한 자기 효능감, 양육 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19(1), 169-187.
- 정혜인(2003). 어머니의 양육 신념 및 양육 효능감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희영(1992).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 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온강(1994). 어머니의 역할 만족도와 관련 변인.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bidin, R. R. (1992).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 Crní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Duncan, T. E., & McAnley, E. (1993). Social support and efficacy cognitions in exercise adherence: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6, 199-218
- Giband-Wallston, J., & Wanderrsmann, L. P. (1978, August).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Lerner, J. V., & Galambos, N. L. (1985). Maternal role satisfactio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child temperament: A proc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157-1164.
- Lust, T., & Kain, E. L. (1987). The relation between family context and perceptions of parental efficac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9, 301-311.
- Luster, T., & Okagaki, L. (1993).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 Rohner, R. P., Hann, B. C., & Rohner, E. C. (1980). Social class differences in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self-evaluation among Korean American Children. *Behavior Science Research*, 15, 55-66.
- Saavedra, J. M. (1980).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warmth and control of on the self evaluation of pueritorican adolescent males. *Behavior Science Research*, 15, 41-54.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inventory. *Child Development*, 37, 107-254.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Stress, support, and antisocial behavior trait as determinants of emotional well-being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85-398.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Welch, D. C., & West, R. C. (1995). Self-efficacy and mastery: Its application to issues of environmental control, cognition, and aging. *Developmental Review*, 15, 150-171.

(2004년 10월 29일 접수, 2005년 6월 14일 채택)